

일본의 정제능력 확대



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지난 5월 17일 각사가신청한 17.5만B/D의 상압증류설비(CDU)의 정제능력 증대계획을 허가하였다. 이로써 일본의 상압정제능력은 지난 3월 말 현재 487만 9천B/D에서 올해 안에 505만 4천610B/D로 확대된다. 개조허가능력은 다음과 같다.

이번의 증설과 관련하여 당초 증설신청이 예상되었던 東邦石油가 지난해 가동율이 80%를 초과했지만, 증설이 1,000B/D밖에 되지 아니하여 신청을 보류하였다. 또 日鑛共石 그룹에서도 후지석유의 정유공장 사고로 그룹전체의 가동율이 80%를 밑돌아 신청을 보류하였다. 이번 CDU 증설은

CDU 증설 현황

| | 정유공장 | 증설 (BPSD) | 완공시기 |
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|
| 이데미츠 | 센 바 | 4만 | 6월 |
| " | 북해도 | 4만 | 7월 |
| " | 愛知 | 1만 | 8월 |
| 오키나와 석유정제 | 오키나와 | 2만 | 5월 |
| 미쓰비시 | 미즈마 | 0.5만 | 7월 |
| " | 川崎 | 1.5만 | 7월 |
| " | " | 0.5만 | 7월 |
| 東燃 | 川崎 | 2만 | 6월 |
| 極東石油 | 센바 | 1.3만 | 8월 |
| 太陽石油 | 菊間 | 0.7만 | 7월 |
| 계 | | 17.5만 | |

'82년 이전 고도성장기에 있었던 고수준의 CDU 능력 보유시기를 제외하고 1992년 증설에 이어 최고수준이 되었다. 그러나 자원에너지청은 '94년 이후에는 이러한 증설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. 기

존시설의 개조에 의한 증설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이고, 새로운 시설계획은 석유심의회의 심의수속을 거친 후에 확정되기 때문이다. ♣

(순간석유정책, '93. 5. 25)